

에이티즈, 美 '빌보드 200' 1위...K팝 중소기획사 처음

**K팝 그룹 일곱 번째...보이그룹 중엔 다섯 번째
4연속 톱10 드는 기록...총 여섯 장 차트에 올려**

대세 그룹 '에이티즈(ATEEZ)'가 미국 빌보드 메인 앨범차트 '빌보드 200'에서 자체 처음으로 정상을 차지했다.

10일(현지시간) 빌보드 차트 예고기사에 따르면, 에이티즈가 지난 1일 발매한 정규 2집 '더 월드 에피소드 파이널: 윌(THE WORLD EP FIN : WILL)'이 15만2000장 상당의 판매량으로 16일 자 '빌보드 200'에서 1위에 올랐다.

'빌보드 200' 순위는 전통적인 음반 판매량 점수에 스트리밍 횟수를 음반 판매량으로 환산한 SEA(streaming equivalent albums), 디지털음원 다운로드 횟수를 음반 판매량으로 환산한 TEA(track equivalent albums)를 합산해 매긴다. '더 월드 에피소드 파이널: 윌'의 물리적 음반 판매량은 14만6000장이다. SEA 유닛은 5500장, TEA 유닛은 500장을 기록했다.

에이티즈는 해당 차트에서 K팝 그룹 중 일곱 번째로 정상을 거머쥐었다. 글로벌 슈퍼그룹 '방탄소년단'(BTS), SM엔터테인먼트 어벤저스 그룹 '슈퍼엠', 차세대 K팝 보이그룹 '스트레이 키즈'(스키즈), K팝 간판 걸그룹 '블랙핑크', 4세대 K팝 간판 보이그룹 '투모로우바이투게더'(TXT·투바투), 신드롬 걸그룹

'뉴진스'를 잇는 기록이다.

보이그룹 중에선 다섯 번째, 4세대 보이그룹 중에선 세 번째로 '빌보드 200' 정상을 찍었다. 특히 에이티즈의 이번 '빌보드 200' 1위는 비 대형기획사, 즉 K팝 중소 기획사 소속 팀으로는 처음 1위를 차지했다는 점에서 특별하다. 지금까지 '빌보드 200' 1위는 하이브·SM·JYP·YG 등 이른바 K팝 4대 기획사가 독식했기 때문이다.

계단식 성장도 눈길을 끈다. 에이티즈는 작년 7월에 발매한 미니 8집 '더 월드 에피소드 윈 : 무브먼트(THE WORLD EP.1 : MOVEMENT)'로 '빌보드 200'에서 3위를 차지했다. 올해 6월 발매한 미니 9집 '더 월드 에피소드 투 : 아웃로우(THE WORLD EP.2 : OUTLAW)'는 '빌보드 200'에서 2위에 올랐다. 각각 밀리언셀러를 기록한 '월드' 3부작이 모두 '빌보드 200' 톱3에 오르는 기염을 토했다.

또 두 미니 8집과 미니 9집 사이에서 이벤트성으로 발매했던 국내 첫 싱글 '스핀 오프 : 프롬 더 윌트니스'가 '빌보드 200'에서 7위를 차지했던 만큼 4연속 톱 10에 드는 기록도 썼다.

에이티즈는 지금까지 총 여섯 장의 앨범을

'빌보드 200'에 올렸다. 재작년 미니 7집 '제로 : 피버 파트 3'로 42위를 차지하며 '빌보드 200'에 처음 들어왔다. 작년 리패키지 EP '제로 : 피버 에필로그'는 73위였다.

대부분 한국어 노래로 구성된 '더 월드 에피소드 파이널 : 윌'은 영어가 아닌 언어로 된 앨범 중 23번째로 '빌보드 200' 1위를 차지했다. 올해만 따지면 비영어 앨범으로는 7번째(이 중 5개가 한국어 앨범) 정상에 올랐다.

'더 월드 에피소드 파이널 : 윌'은 이번 주 빌보드 200 톱10 안에 든 유일한 데뷔작이기도 하다. 최근 빌보드 200 톱10은 미국 팝 슈퍼스타 테일러 스위프트의 '1989'(Taylor's Version)(2위), 캐나다 출신 힙합 재왕 드레이크의 '포 올 더 도그스(For All the Dogs)'(3위) 등이 오랜 기간 장악하고 있다.

에이티즈는 다른 K팝 그룹보다 국내 인지도가 비교적 높지 않지만 해외에서 가장 인기 있는 K팝 그룹으로 통한다. 미국과 양대 팝 시장으로 통하는 영국에서도 반향을 일으키고 있다. 에이티즈의 '더 월드 에피소드 파이널 : 윌'은 최근 영국 오픈셜 앨범차트 톱 100에서 2위에 올랐다. 영국 프로그레시브 팝 록 밴드 '제네시스' 출신 피터 가브리엘의 'i/o'와 막판까지 치열하게 1위 다툼을 벌이다 아깝게 정상을 놓쳤다. K팝 그룹 세 번째로 오픈셜 앨범차트와 빌보드 앨범차트를 동시에 거머쥘 기회를 간발의 차이로 거머쥐지 못했다.



에이티즈는 데뷔 5주년을 갖 넘긴 팀이다. 2018년 10월24일 데뷔해 4세대 K팝 보이그룹을 대표하는 팀 중 하나로 자리매김했다. 팀 이름은 '어 티엔이지 지(A TEEEnage Z)'의 축약으로, '10대들의 모든 것을 담겠다'라는 포부를 상징화했다. 처음부터 해외를 중심으로 반응을 얻었고 재작년 6월 중영한 엠넷 서바이벌 프로그램 '킹덤: 레전더리 워'에서 3위를 차지하면서 K팝 팬들에게 이름을 더 알렸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스트레이 키즈 그리고 보이즈와 함께 '즈즈즈'로 묶여 불리기도 했다.

'해적왕'을 콘셉트로 내세운 에이티즈는 특히 K팝 보이그룹이 초창기 해외에서 인기를 얻은 이유를 그대로 밀고 나가고 있다. 미리 구축한 세계관을 바탕으로 콘셉트를 정하고 이에 따른 이야기를 밀고 나가면서 무대 위에선 강렬한 퍼포먼스를 선보이는 식이다. 에이티즈 전담 프로듀서인 이덴(EDEN)이 수장인 프로듀싱팀 '이드너리(Eden-ary)'가 총괄 프로듀싱을 맡은 음악은 트렌디하면서도 퍼포먼스에 최적화돼 있다. 이에 열광하는 팬덤 에이티니는 케릴라 식 활동으로 점차 세력을 넓혀가고 있다.

뉴진스, 두 마리 토끼 모두 잡았다...‘슈퍼사이’ 상업성 인정·평단 호평

미니 2집 '갯 업', 음반·수록곡 해외 매체 '올해의 노래·앨범' 대거 선정



신드롬 걸그룹 '뉴진스(NewJeans)'가 해외 유수의 매체들이 연발에 발표하는 '올해의 노래'와 '올해의 앨범'에 대거 이름을 올리며 글로벌 팝 시장에서 존재감을 확인했다.

12일 소속사 어도어에 따르면, 뉴진스와 뉴진스의 작품들은 20개가 넘는 매체 선정 올해 K-팝 아티스트·작품 가운데 최고 순위를 기록했다. 일부 매체에서는 K-팝 아티스트·작품 가운데 역대 처음 리스트에 오르기도 했다.

뉴진스는 지난 8일(현지시간) 미국 빌보드 가 발표한 '2023년 최고의 팝스타(Billboard's Greatest Pop Stars of 2023)' 10팀에 이름을 올렸다. 빌보드 스태프가 선정한 이 리스트에는 트로이 시반(Troye Sivan), 트레비스 스콧

(Travis Scott), 자크 브라이언(Zach Bryan), 방탄소년단(BTS) 정국 등 쟁쟁한 팝스타들이 포함됐다. 빌보드는 "뉴진스는 팝 신에서 가장 인정받고 영향력 있는 그룹으로 2023년을 마무리하게 됐다"라고 평가했다.

역시 빌보드 스태프가 선정한 '2023년 베스트송 100선(The 100 Best Songs of 2023: Staff Picks)'에서는 뉴진스의 두 번째 EP '갯 업(Get Up)'의 타이틀곡 '슈퍼 사이(Super Shy)'가 38위에 자리했다. 이는 이 리스트에 포함된 K-팝 작품 중 가장 높은 순위이다. 빌보드는 "슈퍼 사이'엔 전 세계의 최첨단 음악 제작 요소들이 통합돼 있으며, 이 곡의 가사와 퍼포먼스는 언플러그드 상태로 공연해도 좋을

만큼 뛰어나다"라고 평했다.

'슈퍼 사이'는 영국 매거진 NME가 최근 발표한 '2023년 베스트송 50선(The 50 best songs of 2023)'에서는 2위에 랭크됐다. 이는 이 리스트에 든 K-팝 작품 중 가장 높은 순위이자 역대 K-팝 작품 중에서도 최고 순위이다. NME는 "자신감과 수줍음을 동시에 드러내면서 여성스러움을 완벽하게 담은 이 곡은 2분 30초 동안 인생에서 가장 짜릿한 팝 라이딩을 즐기는 듯한 기분을 느끼게 한다"라고 소개했다.

또한, '슈퍼사이'는 영국 일간지 가디언(The Guardian)과 미국 평론지 피치포크(Pitchfork)의 '2023년 베스트송'에 K-팝 곡으로는 유일하게 포함되며 각각 3위, 7위에 자리했다. 피치포크 연말 '베스트송'에 K-팝 작품이 선정된 것은 '슈퍼 사이'가 사상 처음이다.

'슈퍼 사이'는 이 외에도 영국 아이디(i-D) 2위, 미국 롤링스톤(RollingStone) 6위, 미국 벌처(Vulture) 10위, 영국 크랙(Crack) 17위, 캐나다 익스클레임!(Exclaim!) 21위 등 여러 매체의 '2023년 베스트송'에 K-팝 작품 중 유일하게 선정되거나 가장 높은 순위에 오르며 스포트라이트를 받았다.

이런 '슈퍼 사이'가 수록된 음반이자 미국 빌보드 메인 앨범차트 '빌보드 200' 1위를 찍은 '갯 업'은 미국의 롤링스톤, 뉴욕타임스, 아드바커(Yardbarker), 페이스트(PASTE), 팝매터스(PopMatters), GQ 영국판으로부터 '2023년 베스트 앨범'에 선정됐다.

이들 매체는 "올해 어떤 팝과 비교해도 강력한 우승 후보"(롤링스톤), "올해 발매된 가장 모던하고 진보적이며 멋진 팝"(뉴욕타임스), "뉴진스를 차세대 대세로 굳힌 앨범"(GQ 영국판) 등으로 호평했다.

배우 이준호, 첫 팬미팅 투어 성료



한류그룹 '2PM' 멤버 겸 배우 이준호가 첫 단독 팬미팅 투어를 성료했다.

11일 소속사 JYP엔터테인먼트에 따르면, 이준호는 지난 10월14일(이하 현지시간) 타이베이로 시작으로 지난달 4일 마카오, 11일 마닐라, 18일 쿠알라룸푸르, 25일 자카르타, 이달 2일 홍콩, 8일 싱가포르, 10일 방콕까지 아시아 총 8개 지역에서 첫 팬미팅 투어 '준호 더 모먼트 2023'을 펼쳤다.

올해 1월 생일을 기념해 서울에서 연 팬미팅 '준호 더 모먼트 2023'을 아시아 지역으로 확장한 이번 투어는 타이틀처럼 2023년 '지금 이 순간'의 이준호를 그렸다.

이준호는 8개 지역 현지 언어로 관객들에게 맞춤형 인사를 건넸다. TMI 토크, 플레이리스트, 왓츠인 마이백, MBTI 공개 등 팬들과 한 걸음 더 가까워지는 시간을 마련했다.

팬들이 원하는 위시리스트를 이뤄주는 코너

를 통해 챌린지 댄스, 네 컷 사진 촬영, 이미지 챌린지를 선보였다. 특히 이준호가 주연을 맡은 MBC TV 드라마 '웃소매 붉은 끝동'과 JTBC 드라마 '킹더랜드'의 명장면 비하인드를 이야기하고, 명대사를 현지어로 재현할 때는 팬들의 열렬한 반응이 쏟아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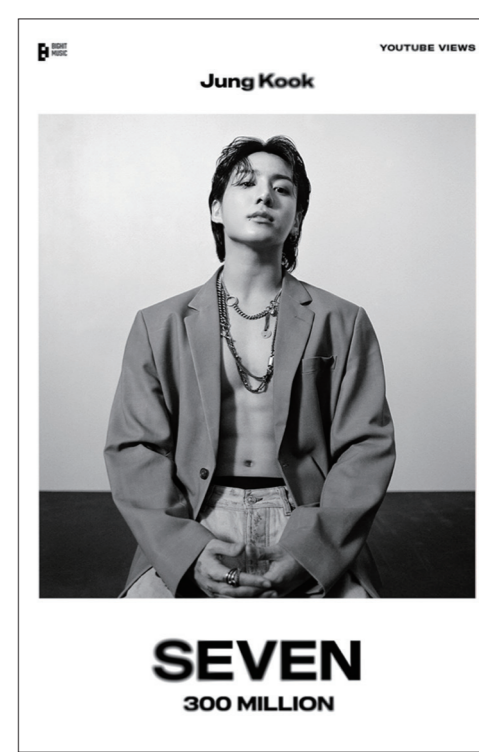
여기에 11월 3일과 29일 각 발매한 스페셜 싱글 '캔 아이(한국어 버전)Can I (Korean Ver.)', 디지털 싱글 '나심 벗 유(한국어 버전) Nothing But You (Korean Ver.)' 무대 첫 선을 보였다. 오직 팬들만을 위한 자리에서 직접 작사한 곡을 최초 공개했고 '노바디 엘스(Nobody Else)', '캔버스(CANVAS)', '아인 러브(I'm In Love) 등 10곡에 달하는 풍성한 세트리스트를 준비했다.

이번 투어 대장정의 막을 장식한 방콕 팬미팅에서 이준호는 "오늘 마지막 공연인 만큼 여러 가지 감정이 스친다. 요즘은 작품을 촬영하거나 음악을 만들고 노래를 할 때, 응원해 주시는 팬 여러분에게 보답하고 싶다는 생각이 더욱더 많이 든다. 어떤 모습으로든 여러분에게 행복을 드릴 수 있도록 앞으로도 열심히 잘 해 나가고 싶다. 제 행복이 돼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고마움을 표현했다.

한편, 이준호는 '웃소매 붉은 끝동'에 이어 '킹더랜드'로 2연속 흥행에 성공하며 가수뿐만 아니라 배우로서도 톱스타 반열에 올랐다.

정국 '세븐' 뮤비, 공개 5개월 만에 3억뷰 ↑

글로벌 슈퍼 그룹 '방탄소년단'(BTS) 멤버인 정국의 첫 공식 솔로 싱글 '세븐(Seven)(feat. Latto)' 뮤직비디오가 3억뷰를 달성했다. 12일 소속사 빅히트 뮤직에 따르면, 정국의 '세븐' 뮤직비디오 유튜브 조회 수는 이날 오전 2시43분께 3억 회를 돌파했다. 지난 7월 14일 뮤직비디오가 공개된 지 약 5개월 만의 성과다. 일주일 내내 자신의 사랑을 증명하기 위해 매 순간 노력하는 이야기를 그린 '세븐' 뮤직비디오는 한 편의 영화 같은 스토리로 여전히 인기가. UK 개러지(UK garage) 장르인 '세븐'은 전 세계 주요 음원 차트에서도 호성적을 거뒀다. 미국 빌보드의 메인 싱글차트 '핫 100'(7월29일 자)에 1위로 직행했고, 영국 오픈셜 싱글 차트 '톱 100'에서는 최고 3위를 찍었다. 또한 '세븐'은 또한 세계 최대 음원 스트리밍 플랫폼 스포티파이가 최근 발표한 '2023 랩드(Wrapped) 연말 결산' 캠페인에서 '톱 10 송스 글로벌리(Top 10 Songs Globally)' 4위에 올랐다.



이효리, 1년 만에 안테나 20년 매출?...광고료 얼마길래

'걸어 다니는 중소기업'으로 통하는 이효리가 톱가수로서 위용을 과시했다.

싱어송라이터 정재형은 지난 10일 유튜브 채널 '요정재형'에 올라온 '오늘은 안테나가 부러진 날로 기억될 것입니다'라는 제목의 영상에서 "올해 효리가 (안테나에서) 올린 매출이 우리가 20년 매출과 비슷한 걸"이라고 밝혔다.

이효리의 남편 이상순도 "작년에 효리한테 온 섭외 전화가 안테나 뮤직션 통틀어서 제일 많을 것"이라고 추정했다.

앞서 이효리는 남편 이상순에 이어 지난 2월 안테나와 전속계약을 맺었다. 안테나엔 정

재형 등 싱어송라이터들이 터춤투대감으로 있는 레이블이다.

이효리는 안테나에 합류하면서 10년 동안 중단했던 상업 광고 출연도 재개했다. 그녀는 지난 10월 KBS 2TV 예능 '더 시즌즈-악뮤의 오날오밤'에 출연해 "상업광고 복귀 발원을 한 이후 100개 정도가 들어왔다"고 털어놓기도 했다.

이효리는 기획사에 들어온 뒤 더 좋은 음악과 퍼포먼스를 선보이기 위해 회사에 수익을 가져다주고 싶었다고 했다. 6년 만인 지난 10월 발매한 신곡 '후디에 반바지'는 호평을 받았



다. 아울러 이효리는 많이 버는 만큼 기부도 많이 하겠다고 앞서 예고했다.

뉴시스